

# 보도자료



**기획재정부**  
MINISTRY OF STRATEGY  
AND FINANCE

| 보도일시 | 배 포 시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일시 | 2011. 12. 30(금) 09:00 | 담당부서 | 대외경제국 국제개발정책팀      |
| 담당과장 | 지광철 팀장(2150-7732)     | 담당자  | 김태웅 사무관(2150-7742) |

## 제목: 2011년 KSP 사업의 주요 성과

### <사업 경과>

□ 올해 KSP 사업은, ① 국제사회의 수요에 부응하여 정책자문사업을 더욱 확대하고, ② '10년 개시한 모듈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발컨텐츠를 더욱 확충

○ 또한, ③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KSP 정책자문을 연계한 공동컨설팅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KSP의 지평을 더욱 확대하고, ④ “KSP 발전방안”을 마련하는 등 사업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

※ 기획재정부는 '04년에 우리 개발경험을 개도국 등과 공유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(KSP, Knowledge Sharing Program)을 도입하여, '11년까지 34개국을 대상으로 300여개의 정책자문을 제공

### <주요 성과>

① (정책자문 사업) 국제사회의 KSP 지원 요청 급증에 따라 KSP 예산과 지원 대상국을 대폭 확대하여 대상국 경제발전 및 우호적 경험기반 구축\*에 기여

\*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 앞 서한을 통해 KSP 정책자문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「2011-2020 사회경제발전전략」 및 「2011-2015 사회경제발전계획」 수립이 가능했음을 밝히고 한국의 지원과 협조에 크게 감사('11.3)

- '11년 사업대상국으로 총 26개국을 선정\*하고 대상국의 정책 우선 순위, 사업여건, 대내외적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

\* KSP예산(억원, 지원국) : ('09) 50, 11개국 → ('10) 75, 17개국 → ('11) 140, 26개국

- 주요 자문주제로 농업개발정책, 혁신기반경제 수립, 재정건전성 관리, 수출진흥정책, 경제위기 극복 등 우리의 개발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\*를 선정

\* 인니(국고관리, 신용인프라), 도미니카 공화국(수출산업 육성 경험), 남아공(통합 인프라 구축), 탄자니아(예금보험제도), 적도기니(국가경제개발계획) 등

- 개도국 뿐만 아니라 자원부국 등 전략적인 경험 필요성이 높은 국가\*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고유한 경험 수단으로 자리매김

\* 브라질(수출 특구개발), 사우디(지식기반경제 이행), UAE(ICT 마스터플랜)등

## ② (모듈화 사업) 우리 발전경험 중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\* 추진

\* 모듈화 정리과제(총 100개) : ('10년)20개 → ('11년)40개 → ('12년)40개

- 국책·민간 연구기관 등 전문가 참여하에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성하여, 개발협력 8대분야\* 위주로 우리의 발전경험 40개 과제를 선정·정리하고, 결과물은 정책자문 사업 등에 적극 활용

\* 경제, 보건의료, 인적자원, 행정·ICT, 농어업, 국토건설, 환경, 산업에너지

## ③ (공동컨설팅)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KSP 사업을 연계한 공동컨설팅을 처음 도입하여 기존 양자협력의 KSP를 삼각협력 형태로 발전

- 주요 국제개발금융기구(MDB)와 공동컨설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\*하는 등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고, 국제기구별 1~3개 사업을 추진하여 10건의 공동컨설팅 사업을 수행

\* AfDB('10.9월), IDB('11.3월), ADB('11.5월), EBRD('11.5월), WB('11.9월)

④ (사업 내실화) KSP 사업에 대한 대내외 인식과 이해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, 사업 확대에 부응하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내실화 대책을 마련

- KSP 국내 공유 세미나 개최(7.15), 지식공유 워크숍 공동 개최\*, HLF-4 참여 등을 통해 국내·국제사회의 지식공유 논의를 선도하고, KSP 사업의 저변과 인지도를 확대

\* OECD('11.7), ADB('11.10)와 공동으로 지식공유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, 행사에 참여한 각국의 정책담당자 및 국제기구 개발협력 전문가들은 한국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KSP 사업의 독창성과 성과를 높이 평가

- 'KSP 추진협의회'(12.2, 재정부 1차관주재) 등을 통해 관계부처·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, 사업 품질제고를 위해 'KSP 발전방안\*'을 마련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(12.26)

\* 주요 내용 : ① 사업규모 확대, ② 사업품질 제고, ③ 관계기관 참여 강화, ④ 사업기반 구축

## <종합 평가>

□ 올해는 KSP가 한국형 정책자문사업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한 해였던 것으로 평가

- ①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도입, 지식공유 워크숍 공동 개최, HLF-4 참여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식공유 논의에서 우리의 KSP 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함
- ② 또한, "KSP 발전방안"을 통해 맞춤형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EDCF, KOICA를 비롯한 후속 ODA 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국격제고를 위한 주요한 경험수단으로서의 위상을 정립
- ③ 아울러, 국제개발 컨설팅 산업기반 조성방안('11.4)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민간 컨설팅 기관의 국제 개발사업 참여 확대에도 기여

## <향후 계획>

-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**KSP 사업을 우리 한국의 고유한 개발협력 모델로 육성,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**
- **KSP 추진협의회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사업계획(별첨)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, “KSP 발전방안”의 구체적인 내용을 유관 부처·기관과의 협조 하에 이행해 나갈 계획**

기획재정부 대변인

- (기본 방향) KSP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품질을 제고하여 한국형 개발협력과 전략적 경험의 핵심 수단으로 발전
  -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각 부처의 참여를 확대하고, 여타 ODA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범부처 정책자문사업으로 육성
- (사업별 운영계획) 정책자문사업과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, 발전 경험을 정리하는 모듈화 사업을 마무리
  - ① (정책자문사업) 30여개국('11년 26개국)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, 아시아 국가 뿐 아니라, 중동·아프리카·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
    - 특히, 마스터플랜 제도 신설\*(2개국)을 통해 중동·북아프리카(MENA) 지역 국가의 경제·사회 시스템 재건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실시
    - \* 협력 대상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경제개발계획, 신도시, 인프라, ICT등 분야별 계획을 우리가 직접 수립·제공해 주는 정책자문 방식
  - ② (모듈화 사업) 관계부처·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협력 8대 분야\*를 중심으로 40개 과제를 선정, 3년간의 모듈화 사업\*\*을 완료
    - \* 개발협력 8대 분야(ODA 선진화 방안. '10.10) : 경제, 보건의료, 인적자원, 행정·ICT, 농업, 국토건설, 환경, 산업에너지
    - \*\* 모듈화 정리과제(총 100개) : ('10년)20개 → ('11년)40개 → ('12년)40개
  - ③ (공동컨설팅 사업) 국제기구 등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규모를 15건 내외로 확대('11년 10건)
    - \* 국제사회에서의 수요가 높고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는 전자정부, ICT, 녹색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
- (추진체계 개선) 재정부가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, 관계부처·기관이 연구진 선정, 컨설팅 수행 등 사업 전 과정에 직접 참여
  - 유사·유관 ODA 사업의 경우 관계부처·기관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성공적 연계 사례를 발굴하고, 협력모델을 구축·확산